



무주군, 무풍보건지소 작은 물리치료실 운영

무주군이 1일부터 무풍보건지소에 작은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 지난해 1월 안성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운영에 이어 지리적으로 가까운 보건지소에 어르신들의 혈액순환과 관절관리, 통증관리에 효과가 있는 물리치료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무풍보건지소에는 간접파치료기, 자주파자극기, 초음파치료기 등 물리치료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등을 두루 갖췄다.

기준에 설치된 건강증진 장비(발마사지기, 안마의자, 건식 족욕기, 공기압마사지기)와 병행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통증, 관절 관리서비스를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1,400원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무풍면 지역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물론 무주군이 추구하는 어르신 공경 확산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는 1일 시민위원과 내부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법률 전문성이 있는 외부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생계형 범죄 등 사인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회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감경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날 위원회에서는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되고 처벌의사가 없거나 대상자의 연령·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3건을 선정해 위원들의 민정일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감처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오보그로우, 김제시에 백미 10kg 200포 기탁

김제시 백구면 소재 커피전문점 오보그로우(대표 최세미)는 1일 관내 저소득 가정에 지원해달라며 백미 10kg 200포를 김제시에 기탁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최세미 대표는 “카페 개업시 받은 축하 선물을 주변의 어려운 가정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작은 나눔을 통해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구면 번영로에 위치한 오보그로우는 커피 및 제과 등을 판매하는 카페로서 카페 개업시 축하금 대신 기증받은 백미 1,000포를 김제시 200포, 백구면 150포, 타지자체 등에 기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추석 맞아 임실군에 따뜻한 손길 이어져

전국한우협회임실군지부 · 대한한돈협회임실군지부 · 유튜브 멕두리 · 제일여객 김진태 대표, 기탁

임실군에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사)전국한우협회임실군지부(대표 황은석)는 한우 118kg(400여만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임실군 관내 저소득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기탁했다. 황은석 대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독거노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우 농가들이 마음을 모아 기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사)대한한돈협회임실군지부(대표 김성두)는 한돈 366kg(400여만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했다. 김성두 대표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맞는 추석 명절이니만큼 조금씩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한돈 나눔 행사를 갖게 되었다”며 “임실군 관내 어려운 분들과 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튜브 멕두리(대표 백성혁)는 홍삼엑시스 200세트(900여만 원)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관내 저소득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기탁했다. 백성혁 대표는 “고향을 배경으로 멕방을 하다 보니 고향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홍삼세트를 마련했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서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일여객 김진태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한적



십자사전복지사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에게 임실사랑상품권 1,000만원을 전달했다. 임실 신평이 고향인 김진태 대표는 작년에 대한적십자사에 아니소사이어티에 기탁하면서 고향인 임실에 5년에 걸쳐 매년 1,000만원씩 임실사랑상품권을 기탁하기로 했다. 김진태 대표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임실이 항상 마음에 있고 고향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실사랑상품권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진안 · 용담향교 추계 석전대제 봉행

진안향교(전교 최경호)와 용담향교(전교 김상기)는 1일 역 내 현관 및 제관, 유립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석전대제를 각각 봉행했다.

석전대제란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의식행사로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진안군에서는 진안향교(도문화재 자료 14호)와 용담향교(도문화재 자료 17호)에서 매년 봄, 가을 2회 치러지고 있다.

이날 봉행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참례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및 2미터 간격 유지 등 자율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 3개 향교, 추기 석전대제 봉행

김제시 관내 김제향교(전교 나부곤), 만경향교(전교 김길승), 금구향교(전교 김희)에서는 1일 각 향교별로 유도회원,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석전대제는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문묘에서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에게 제를 올리는 유교의례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봉행하고 있다.

지난 2년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석전대제를 간소화하여 봉행하였으나 이번 석전대제는 많은 유립들이 참석하여 성현들에게 예를 다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소방서, 가을 산악사고 안전수칙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백성혁)가 등산객이 증가하는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도내 산악사고 구조건수는 2020년 470건에서 499건으로 약 6.1% 증가, 구조인원은 2020년 235명에서 295명으로 약 25%가 증가했으며, 최근 선선해진 날씨와 단풍 등으로 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주요 안전수칙에는 △산에 오르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스트레칭 △지정된 텁방로 및 야간산행 자제 △산행 전 날씨, 등산로 등 정보와 사전숙지 △산행 중 음주 절대금지 △부상 및 조난시 산악 위치 표지판 활용 119신고하기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